



표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만민중앙소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news.manmin.or.kr

등록번호 : 다-1840(1989. 7. 12.)
편집처 및 발행소 : 만민중앙성결교회
발행인 : 이재록
인쇄인 : 김신경
편집인 : 빈금선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02-818-7000
e-mail : manminnews@hotmail.com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띤 만민중앙성결교회

제380호(구400호) 2008. 12. 28.(격주간)

2009 축복의 새해를 기대하며

'나'는 없고 오직 '주'만 살아
준비된 하나님 일꾼으로
그 영광 나타내길...

죄악으로 어두워진 마지막 때
참 사랑에 굶주린 세상 모든 영혼이
따스한 주님 품에서 쉬을 얻길...

올 한 해에도
좁은 길 걷는 즐거움으로
기도했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축복 속에
앞서가는 제단을 일구는
만민의 꿈과 힘이
눈부신 권능과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누리에 크리스마스트리 점등 및 성탄 축하예배

우리 교회는 19일 저녁 교회 앞마당에서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한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비롯, 수많은 교역자와 성도가 참석해 성탄의 기쁨을 같이 나누며 성결 복음이 만민에게 함께하길 기원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마음을 닦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점등식에 이어 김혜경 찬양선교사, 연합성가대, 금관 앙상블, 마칭 밴드 등의 축하 공연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만민 TV 위성방송, 인터넷 TV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24, 25일에는 만민 TV 위성방송으로 녹화 방영됐다.

성전 내부는 '천상의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대형 면류관과 트리, 볼과 각종 소품으로 벽과 기둥 등을 아름답게 장식했고, 외부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과 평화'라는 주제로 약 10m 높이의 대형 트리, 아치형 네온장식 등 최첨단 소재를 사용한 3만 7천여 개의 엘이디 조명으로 장식했다.

한편, 24일 저녁 7시 성탄 전야예배에는 정구영 목사의 설교와 예능위원회 소속 할렐루야선교단, 크리스탈싱어즈, 빛의소리중창단과 성가대의 찬양, 주님의 탄생 과정을 담은 단막극으로 성탄의 의미와 기쁨을 더욱 안겨주었다. 다음 날인 25일 오전 11시에는 성탄 축하예배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사 53:4, 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칼럼 Column

365일 복된 삶

성탄절은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맘 때가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며 다가오는 새해를 향한 소망 속에 계획을 세웁니다.

정녕 하나님을 믿고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고와 질병 등 많은 세상의 문제 가운데에도 일년 내내 평안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또한 직장나 사업터에서 축복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손길에 감사하며 다가오는 2009년에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365일 복된 삶을 영위하길 바랍니다.

글 • 이재록 목사
한겨레신문 연재 '길' 칼럼에서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 예배	1부 · 오전 10:00 2부 · 오전 11:30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비율·마리아]	오후 8:00
	[빛과소금선교회 오후 9:00] [요식업선교회 오후 11:00]	수요찬양예배 [빛소금]	오후 9:00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오후 4:00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오후 3: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아동주일학교 주일예배	1부 · 오전 9:00
금요철야예배	오후 11:00		2부 ·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저녁 · 오후 1:30
새벽예배	새벽 5:00		

교회 약도



- 시내버스: 5536, 5615번 (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거리 하차)
-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국 ☎ 02-818-7391~5)

만민중앙소식을 받아보시려면

- 이 소식을 받아 보기 원하시는 분은 먼저 전화로 구독신청하신 후 우송료를 지정은행 또는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우 송 료 : 1년분 5,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 구독신청 : 02-851-3845
 - 온라인 번호(예금주: 위성영)
- | | |
|------|-------------------|
| 국민은행 | 362-21-0201-106 |
| 우리은행 | 072-255732-02-201 |
| 농협 | 100072-52-061722 |
| 우체국 | 012419-02-047269 |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예수 그리스도

“...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4, 5)

성탄절이 되면 세상 사람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며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왜 기쁘고 즐거운 날인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성탄의 의미는 모른 채 단지 기뻐하며 즐겁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가고 주님을 믿는 다 고백하며 성탄의 기쁨을 누리다 해도 그 의미를 모른다면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탄생의 영적 의미를 되새겨봄으로써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1. 짐승의 우리에서 나고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호화로운 궁전이나 적어도 안락한 집 안에서 태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짐승과 같은 인생을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서 3:18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왜 인생이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아있는 영, 곧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에 따라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지으셨지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해 죄가 들어오므로써 영이 죽고 맙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었지요. 대신 원수 마귀 사단의 주관 받으니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악에 물들어갔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잃고 사람의 본분을 잃은 채, 짐승과 다름없는 모습이 되었지요.

하나님 말씀처럼 짐승과 다름없는 인생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짐승과 같은 인생을 대속하기 위해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의 먹이를 담은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7에 “말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눕혔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했지요. 예수님을 구유에 눕혔다는 것은 짐승과 다름없는 사람들의 양식이 되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양식이란 ‘영생을 얻는 양식’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6:51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양식 삼는 것이 주님의 살, 곧 산 떡을 먹는 것입니다. 산 떡을 먹는 자만이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낳고 천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을 내주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2. 가난하게 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까지도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을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9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전혀 부족함이 없는 풍요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죄가 들어온 뒤로는 달라졌지요. 가난과 배고픔의 고통도 겪었습니다. 가난 자체가 죄악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난도 아담의 범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신 가난하게 사심으로써 대속해 주셨지요.

따라서 우리는 부요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도를 걷는다면 축복받아 부요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3. 채찍에 맞으심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 별거벗긴 채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채찍 끝에는 납덩이가 달려 있어 때릴 때마다 몸을 휘감으며 살점을 파냈지요. 이사야서 53:5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습니다. ‘나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나왔다’고 했지요. 베드로전서 2:24에도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합니다.

질병이나 연약함이 치료되기 위해서

는 반드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그 원인이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한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며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요. 이때, 그의 질병은 치료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뒤 그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질병이 치료됐다 해도 또다시 죄를 지으면 더 심한 질병이 생길 수 있음을 경고해 주신 말씀이지요. 바로 이러한 말씀에서 질병의 원인이 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22에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따라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피 흘려 주심도 질병의 원인이 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으로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으며 어떠한 질병이라도 치료됩니다.

4. 가시 면류관을 쓰심은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 면류관의 가시는 매우 길고 단단했습니다. 이 가시 면류관을 머리보다 작게 만들어서 억지로 눌러 씌우면 가시가 머리를 파고들어 살이 찢기고 박히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며 피 흘리심은 생각으로 짓는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머리의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시기, 질투, 미움, 판단, 정죄, 간음 등 생각 속에서 갖가지 죄를 짓고 삽니다. ‘어떻게 생각 속에서까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받은 하나님 자녀는 생각 속의 죄까지도 버려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았습니. 설령, 머리로 나쁜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을 행함으로만 옮기지 않으면 관참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의 마음에 성령이 내주한 뒤부터는 생각으로 품는 것도 죄가 됩니다.

마태복음 5:28에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했지요. 요한일서 3:15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에 있는 죄성이 생각을 통해 나오는 것도 죄가 됩니다.

그러면 혹여 ‘마음에 아직 죄성이 있어도 생각만 안하면 되는 것인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성이 남은 이상 육신의 생각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악을 버리기까지는 이런 저런 육신의 생각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죄까지 사해 주시려고 대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5. 양 손과 발에 못 박히심은

마가복음 9:43, 45에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끼이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불구자가 되더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손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품은 죄를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은 손과 발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취하며 죄를 짓지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손과 발로 짓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 양 손과 발에 못 박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진정 믿는다면 죄와 싸워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믿음의 행함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 백할 때에 주님의 참된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음으로써 매일 성탄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세상을 녹이는 사랑의 마중물

.....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한 바가지의 물을 부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펌프로 많은 물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붓는 이 물을 마중물이라 한다. 우리의 작은 행함이 사랑의 마중물이 되어 얼어붙은 세상을 주님 사랑으로 녹일 수 있길 기대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

남을 위해 희생하며 자신의 것을 나누는 손길은 실로 아름답다.



우리 교회 구제위원회(위원장 이수진 목사) 구제부에서는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환자 가정 등 약 6백 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생활보조금과 쌀, 반찬 등 구제 물품을 제공한다.

구제의 목적은 '영육간 구제'로 궁극적으로는 구제받는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구원받는 데 있다. 교구 여지역장과 남·여선교회를 제외한 선교회장단에서 교회를 대신해 가가호호 전달한다. 민망해하면서도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는 성도들을 보며 모든 영혼에게 삶과 평안을 주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되새긴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변함없이 감사하며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할 때에는 더없이 보람을 느낀다.

구제위원회 소속 장학부에서는 주의 종과 교회 직원 자녀 및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데 교구장과 지도교사의 추천으로 주일성수는 물론 신앙의 본이 되는 학생을 선별한다.

대학생은 1년에 2차례, 초·중·고 학생은 1년에 4차례 분기마다 지급하며 수혜 대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도움을 받은 뒤 책임감을 느껴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다음 학기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거나, 수혜 학생의 믿지 않는 부모가 교회 출석하게 됐다는 흐뭇한 미담도 많이 듣는다.

주님 보혈로 맺어진 만민의 가족

그 누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 참으로 맞는 말이다. 본디 혈연관계의 깊은 정을 뜻하는 말이지만, 주님 보혈로 맺어진 가족의 정 또한 여느 가족보다 끈끈하다.

김치를 담그면 교구 식구들 얼굴이 떠올라 나눠 먹게 되고, 외롭게 사시는 성도님 생각에 밑반찬을 만들어 현관 앞에 조용히 두고 온다. 서로서로 아기 용품을 대물려 쓰는가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님에게는 내 부모 같은 마음에 집안 청소며 설거지를 해 드린다. 길가에 재활용품으로 나와 있는 장롱을 보면 가져다가 새것처럼 수리해서 필요한 성도님 안방에 쭈욱 넣어 드리고 보일러, 하수도 고장에 도움을 청하면 열일 제쳐 놓고 달려간다.



이 친절과 사랑은 연말연시용이 아니라 사시사철 1년 365일 계속된다.

누가 알아 주어서도 아니고 시켜서도 아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물질이 있거나 없거나 마음이 늘 넉넉하니 나보다 남을 먼저 위해 주는 풍요로운 삶이 된 것이다.

슬픔은 덜어내고 기쁨은 복돋는 경조 도우미



애경사에 함께한 친구에 대한 고마움은 마음 깊이 오래 남는다.

우리 교회 경조위원회(위원장 김영석 목사) 혼례부와 장례부가 바로 그런 친구다.

혼례부에서는 성도의 편안하고 은혜로운 결혼식을 위해 모든 절차를 돕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다른 교회 성도로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더욱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

장례부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성도를 먼저 배려해 장례 절차를 돕는다. 임종예배를 집행하려면 한밤중도 새벽도 없다. 장마철에는 진흙탕에 발이 썩썩 빠지고 눈 속을 헤치고 장지까지 운구

봉사를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성도의 천국행을 입증하듯 하늘 높이 뜬 무지개와 엄동설한에도 포근한 날씨로 허락하시는 하나님 사랑에 은혜와 감사가 넘친다. 궂은일에 내 일처럼 달려와 수고해 주니 고맙다며 믿지 않는 가족이 교회 나가겠다고 할 때면 장례부원들은 보람을 느낀다.

축제 분위기로 들쭉이는 연말연시, 유난히 춥고 시린 겨울을 나는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주변을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잠 11:25)는 말씀처럼 사랑을 나눌 때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일본 이다 성탄 콘서트 '한일전통예능제전'

'한일전통예능제전' 이 12월 23일 오후 1시 30분, 이다 만민교회 주최로 가나에 문화회관에서 열렸다.

한일 전통 악기로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공연으로 기독교에 배타적인 일반인들에게 성탄의 참된 의미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우리 교회 새롭고약선교단과 일본의 북프로 공연팀 토카라, 아야, 민요 공연팀, 이다 만민교회 예능선교단이 출연했다.

이번 콘서트는 이다 시를 비롯해 NBS 나가노 TV 방송 등 일본의 지상파 TV 방송국 세 곳과 시나노 마이니치신문, 신슈일보 등 일간 신문사 다섯 곳에서 후원하고 취재했다.



모금액은 이다 시 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해 이다 시의 복지사업에 사용한다.

그동안 이다 만민교회는 노인 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위문 활동 등 복지사업과 한일 교류 행사를 통해 주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해왔다.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5335-542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2동 1323-12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2018-8410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서구 범물 1동 1281 지하 ☎053)783-3017, 010-7112-3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1-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062)513-2455, 011-387-0263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1 ☎062)372-1002, 011-601-10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001-2 ☎062)266-7001, 011-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9663-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6-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6-278-7712 ● 평택만민동야교회 경기도 평택시 비전 2동 221-7 ☎031)665-1405, 011-358-5973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6-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정충동 564-15 ☎041)667-4721, 018-618-6194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1-701-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1)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173-11 ☎043)283-5004, 010-9271-70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랑동 956 ☎016-215-0116, 010-4155-588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1100 ☎043)845-0617, 019-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2동 626-1 ☎055)247-8891~2, 010-8947-5989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3745-2119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2536-2515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8-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중앙동 95-3 ☎055)289-9522, 011-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1-214-8891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진주향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동2동 47-5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192-3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구미시 오대동 742-4 ☎054)464-4512, 016-539-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1-602-9522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153 ☎061)452-7443, 011-608-3037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2가 929-1 ☎063)223-9991, 018-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1동 250-3 ☎063)853-0675, 011-671-7191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1 ☎033)251-1144, 010-7770-207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3731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12-2 ☎033)641-3790, 017-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도 연동 2307-5 ☎064)745-0675, 010-2468-2251 ● 영동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9-234-3719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88-26 ☎02)995-9951, 011-177-1217, 011-719-2073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2)556-8517~8, 019-234-3719 ● 인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31)781-9830, 017-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동 348-5 ☎02)489-3766, 010-6712-2073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2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흥 158-5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6-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165-1 ☎031)840-2906, 019-251-3149 |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을 이용한 동시 화상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추운 마음 데우는 '훈훈한' 이야기 한 토막

“소소한 선행도 많은 이에게 행복을 줍니다”

최영규 집사 (31교구 구역장)



교회 앞 삼거리 횡단보도,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언제 보아도 사랑스럽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5년째 예배 전후로 교통 봉사를 합니다.

건설회사의 현장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로 마산, 안동에서 3년간 근무를 할 때에도 교통대 부대장과 기관장 사명 감당을 위해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서울에 올라와 예배를 드렸지요. 마음이 즐거우니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봉사를 더욱 열심히 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3년 전 이맘때, 과중한 업무 탓에 피곤과 싸우며 졸음운전을 하다가 그만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차는 크게 부서졌지만 어찌된 일인지 저는 어깨뼈가 다친 것 외에는 아주 멀쩡했습니다. 사고 처리를 위해 온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은 제 얼굴과 완전히 망가진 차를 번갈아 쳐다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요. 어깨뼈도 당회장님께 기도받고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그 뒤, 두 번째 인생을 사는 마음으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충성,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요.

올해 8월경, 구역 식구인 정 집사님이 다니엘철야에 참석해 기도하고 싶은데 부천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있고 차비가 부담스러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같은 구역원이 여러 명 있다는 것도 알았지요. GCN 안테나를 설치하면 구역원들이 함께 참석해 기도할 수 있겠다 싶어 정 집사님 사업터

에 GCN 안테나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이에 감동받은 정 집사님은 선뜻 사업터 일부를 모임 장소로 내주셨고, 우리는 합심해 그곳을 아늑하게 꾸몄습니다. 남장년 지역예배를 시작으로 그곳은 현재 각종 모임과 매일 밤 본교회로 가지 못한 성도들을 위한 다니엘철야 장소로 아주 사랑을 받습니다.

저는 이런 소소한 간증들을 컴퓨터에 일일이 기록해 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이지요. 너무 작아서 그냥 지나쳐도 될 소소한 일에도 마음을 쓰면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진 올해 겨울은 IMF 이후 가장 매서운 겨울이라 한다. 그래서일까? ‘어디 마음까지 데워 주는 훈훈한 이야기 없을까?’ 하고 자꾸만 안테나를 세우게 된다. 아직 세상에 남아 있는 주님 사랑의 온기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양초가 자신의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듯 선행과 봉사로 이웃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세상의 온도를 한껏 높일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해 보자. 교통 봉사로 섬김의 기쁨을 얻는 최영규 집사와 하나님 권능으로 많은 질병이 치료된 뒤 나누는 삶을 통해 영육간에 축복이 넘치는 엄성분 집사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

“아줌마, 방 하나 주세요!”

작년 12월 어느 날, 어둑어둑할 무렵 허름한 행색에 머리를 박박 깎은 한 사내가 집으로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세놓고 있던 아랫층에 마침 빈방이 있었지요. 하도 무서운 세상이라 순간 망설였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모른 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편으론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하니 ‘밖에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지금 내보내면 얼어 죽을 거야. 오갈 데 없는 사람 같으니 방을 내 주자’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방을 주기로 결정하고 그가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일러를 틀어 주며 이불을 내주었지요.

나중에 찬찬히 그의 얼굴을 살펴보니 얼굴 곳곳에 흉터가 나 있었습

니다. 평범하게 산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의 방에는 세간살이도 하나 없고 일 하러 나가는 법도 없었습니다. 허구한 날 사람들을 불러 술을 마시고 어쩌다 방문을 열어 보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몇 달째 방세도 못 받았지만 굳이 받으려는 마음도 없었고,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과금까지 고스란히 우리 몫이 되는 상황이었지요.

그는 가끔 술에 찌든 얼굴로 김치를 얻어 가곤했습니다. 측은한 마음에 때때로 생활용품을 넣어 주고, 간혹 용돈을 손에 쥐어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온 사람을 내칠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그랬다가 그가 잘 못되기라도 하면 큰 후회와 상처가 남을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집에 들이지도 않았겠지요.

저는 하나님 만나서 협심증, 심장병, 당뇨, 우울증 등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었고, 남편 역시 고엽제 후유증 5급이 치료되어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뿐이기 때문에 그를 참고 기다려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고 교회에 나갑시다’ 하면 그는 잠잠히 듣고 있다가 ‘네, 그렇게요’ 하는 바른 구석도 보였습니다. 몇 달쯤 흘렀을까. 그가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어느덧 그는 어엿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고 지금은 열심히 교회 출석하며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깔끔해졌고, 가끔 노숙자를 집에 데려와 씻기고 재워 주기도 한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은 이웃들에게도 화제입니다.

몇 달 전, 가지고 있던 부지가 재

“웁켜쥐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누며 살아요”

엄성분 집사 (32교구 구역장)



개발 되면서 몇 년에 걸쳐 주셨던 땅값을 일시불로 받는 뜻밖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마 10:42)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캐롤이 울리는 인도의 한여름 밤

12월이 되면 인도의 기독교인들은 한 달간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 ‘캐롤송 돌기’(성도 가정 대심방)를 시작한다.

비록 한국과 같이 눈이 있는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여름밤의 ‘캐롤송 돌기’를 위해 성도들이 저녁이면 교회로 모여든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준비해 간 선물과 새해의 달력을 전

달한다.

또한, 방문한 가정에서는 갖가지 음식과 다과를 준비해 주님 사랑을 나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돌고 주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노라면, 인도인의 차숨에 가난과 질병의 고통은 어느새 사라지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찬다.

인도 첸나이 만민교회